

발행일 | 2019.1.24.(목) 통권 제46호
 발행처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 김진용
 주 소 | 인천광역시청 2층 감염병관리지원단
 전 화 | 032-440-8031

ICDC Weekly

www.icdc.incheo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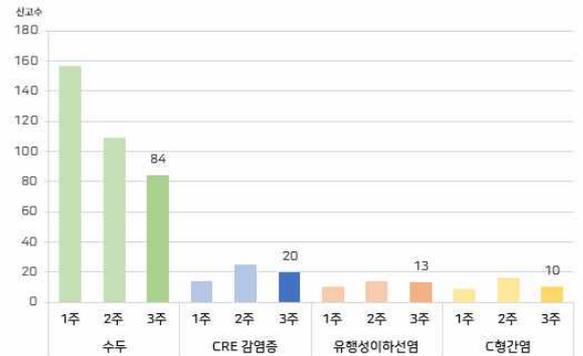
CONTENTS

- ① 주간 감염병 NEWS
- ② 인천광역시 주요 법정감염병 신고현황
- ③ 주간 표본감시 현황(표본감시 현황_인플루엔자/급성호흡기감염증/장관감염증)
- ④ 국내외 감염병 감시정보
- ⑤ 홍역 유행
- ⑥ [전문가칼럼]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백신(김기환 교수)
- ⑦ 홍역, 바로 알고 예방하세요!

① 주간 감염병 News

🏠 인천

- 이번 주는 수두 84건, CRE 감염증 20건, 유행성이하선염 13건, C형간염 10건 등의 순으로 신고
- 이번 주 해외유입감염병은 Dengue열 2건(베트남, 인도네시아), 치쿤 구니아열 2건(베트남, 인도네시아)이 신고
- 홍역은 2건(의사환자)이 신고되었으나 검사결과 2건 모두 음성



- 홍역 확진자 1명 발생 (19.1.24. 오전 10시 기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유행 지속
 - 2주(2018.1.6.~2019.1.12.)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3.6명으로 전주(53.1명) 대비 감소
 -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명(2018.11.16. 2018-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은 2018-2019절기 2주(1.6.~1.12.)에는 285개 검체 중 96건 양성(33.7%) [A(H1N1)pdm09 77건, A(H3N2) 18건, B형 1건]

🏠 국내

- 해외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 [바로가기](#)
 - 지난해 12월부터 총 37명 홍역 확진('19.1.24. 오전 10시 기준)
 - ※ 집단유행: 대구·경북 경산시 등(17명), 경기도(12명), 개별사례: 서울(3명), 전남(1명), 경기(3명), 인천(1명)
 - 최근 유럽,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 개별사례 8명 중 6명은 각각 베트남, 대만, 필리핀, 태국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생한 해외유입사례
-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 ☞ [바로가기](#)
 - 어린이 예방접종, 홍역 유행국가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권고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보건소로 신고

🌍 국외

-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홍역 유행 중 ☞ [여행시 감염주의!](#)
 - 홍역 유행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주전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 귀가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에 문의

2 인천광역시 주요 법정감염병 신고현황

단위 : 신고수

구 분	2019			2018	동기간대비(1-3주)			이전해(전체) 연간 신고수					해외 유입	
	3주	2주	1주	52주	2019	2018	증감	2018	2017	2016	2015	2014		
1군	콜레라	
	장티푸스	3 ▼	11	10	7	2	11		
	파라티푸스	1	7	1	1	6		
	세균성이질	.	.	.	1	.	4 ▼	20	6	11	12	2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	.	.	1	.	▲	14	8	13	1	12	
2군	A형간염	6	6	4	3	16	17 ▼	171	461	301	207	111		
	백일해	2	.	1	.	4	4 -	48	34	5	5	5		
	파상풍	2	2	2	.	1		
	홍역	2	.	.	.	2	.	▲	1	.	.	2	54	
	유행성이하선염	13	14	10	10	37	40 ▼	970	848	700	753	838		
	풍진	1	.	▲	
	일본뇌염	2	1	3	1		
	수두	84	109	157	120	357	336 ▲	4,369	5,356	2,597	2,453	2,525		
	급성B형간염	.	.	1	2	1	1 -	24	23	17	10	1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	.	.		
	폐렴구균	.	3	1	5	4	4 -	46	30	31	21	1		
	3군	말라리아	.	.	1	.	1	2 ▼	86	80	84	108	131	
		성홍열	7	8	6	3	21	59 ▼	721	1,179	500	279	204	
한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3		
레지오넬라증		.	.	1	.	1	1 -	23	15	9	4	2		
비브리오패혈증		6	4	4	3	3		
발진열		1	.	.	.	1	.	▲	2	.	3	.	1	
쯔쯔가무시증		3	.	2	1	5	1 ▲	72	91	117	105	58		
렙토스피라증		3	.	1	1	1		
브루셀라증		.	1	1	1	2	.	▲	11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1 ▼	10	5	7	7	4		
매독(1기)		2	2	4	3	8	6 ▲	132	142	106	54	57		
매독(2기)		.	1	.	4	1	3 ▼	63	67	44	12	12		
매독(선천성)		4	.	1	1	4		
CJD/vCJD		5	1	3	1	3		
C형간염		10	16	9	10	35	53 ▼	838	478	-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CRE) 감염증	20	25	14	13	59	60 ▼	1,205	614	-	-	-			
4군	덴기열	2	2	.	.	4	.	▲	12	9	17	10	8	2
	큐열	.	1	1	2	2	.	▲	23	2	.	.	.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1	.	1	.	2	.	▲	6	2	.	1	1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2	.	.	.	2	.	▲	1	.	.	.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	4	3	4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	.	4	-	-	

- 3주차(2019.1.13~2019.1.19) 법정감염병 신고현황은 2019.1.22.(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8, 2019년도 통계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법령개정을 반영하여, 폐렴구균은 2014년 9월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은 20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2016년 1월 이후 자료임
-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CRE) 감염증은 2017년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군분류 변경되었으며, 2017년 6월 이후 자료임
- B형간염은 감염병 진단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급성B형간염에 한해 신고함

3 주간 표본감시 현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18-2019절기)

- (전국)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3.6명으로 전주(53.1명) 대비 감소
- (인천)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4.4명으로 전주(30.1명) 대비 감소
- ※ 2018-2019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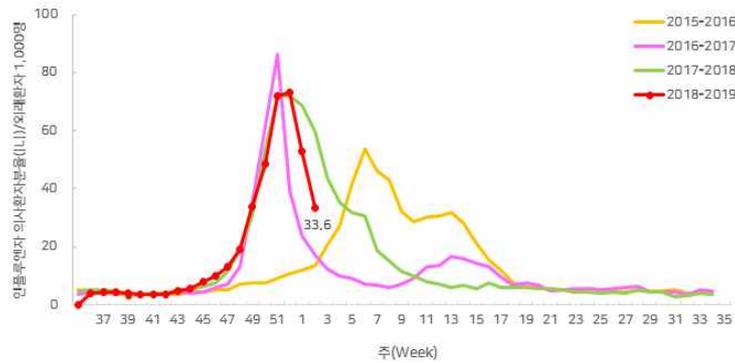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18년						2019년	
	47주	48주	49주	50주	51주	52주	1주	2주
전국	13.2	19.2	34.0	48.7	71.9	73.3	53.1	33.6
인천	9.7	23.0	37.0	46.4	48.9	40.1	30.1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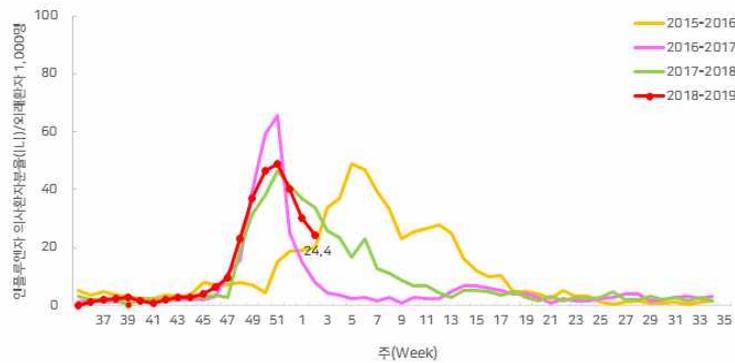
■ 2018년 2주차 연령별 의사환자(ILI) 현황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연령구분							
	전체	0세	1-6세	7-12세	13-18세	19-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국	33.6	17.5	46.1	112.3	137.0	54.9	22.2	8.0
인천	24.4	9.7	25.6	34.7	72.4	25.2	20.8	11.6



최근 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최근 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천)

- 2주차(2019.1.6.~2019.1.12.)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2019.1.17.(목)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웹보고 및 2019년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2주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38°C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자
- 수행기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200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 인천광역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 13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 주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2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1,239명으로 전주(1,643명) 대비 감소
- (인천) 2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125명으로 전주(107명)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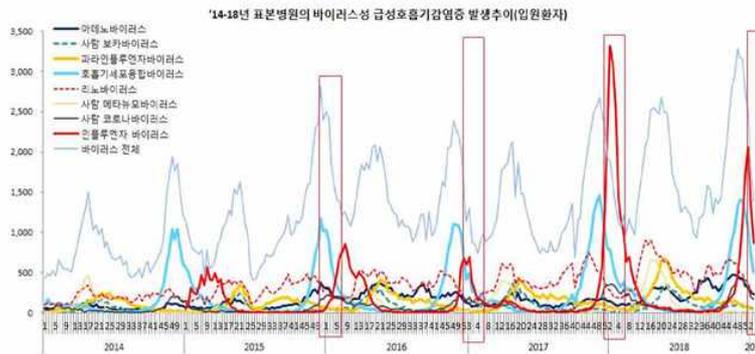
■ 주별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2주차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148명으로 전주(181명) 대비 감소
- (인천) 2주차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명으로 전주(29명) 대비 감소

단위(명)

구분	바이러스별 환자 신고현황														세균별 환자 신고현황			
	HAdV		HBoV		HPIV		HRSV		HRV		HMPV		HCoV		Mycoplasma		Chlamidia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51주	336	23	68	7	75	4	1,215	84	413	20	14	0	361	13	253	37	7	0
52주	316	13	70	4	75	2	1,060	70	372	12	11	0	301	15	256	38	3	0
2019년 1주	248	17	64	2	57	2	761	57	298	12	5	1	210	16	173	21	8	1
2019년 2주	236	26	43	8	36	3	511	63	214	11	28	0	171	14	146	20	2	0
2019년 누적	484	43	107	10	93	5	1,272	120	512	23	33	1	381	30	319	41	10	1

- HAdV: 아데노바이러스, HBoV: 보카바이러스, HPIV: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H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HRV: 리노(라이노)바이러스, HMPV: 메타뉴모바이러스, HCoV: 코로나바이러스



2014-2019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전국)



2014-2019년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현황(전국)

- 2주차(2019.1.6~2019.1.12.)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2019.1.17.(목)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웹보고 및 2019년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2주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임상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감시 자료를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2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 2017년 32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 * 인천광역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 10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주별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2주차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환자는 289명으로 전주(294명) 대비 감소
- (인천) 2주차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환자는 25명으로 전주(11명) 대비 증가

단위(명)

구분	바이러스별 장관감염증 환자 신고현황											
	Group A Rotavirus		Norovirus		Enteric Adenovirus		Astrovirus		Sapovirus		전체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52주	69	4	205	24	23	0	7	0	2	0	306	28
2019년 1주	58	1	203	10	15	0	5	0	13	0	294	11
2019년 2주	54	5	208	18	14	2	6	0	7	0	289	25
2019년 누적	112	6	411	28	29	2	11	0	20	0	58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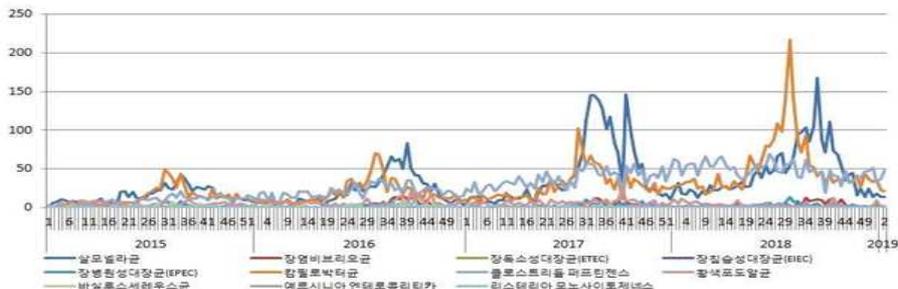
2015-2019년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신고현황(전국)

주별 세균성 장관감염증 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2주차 세균성 장관감염증 환자는 86명으로 전주(76명) 대비 증가
- (인천) 2주차 세균성 장관감염증 환자는 13명으로 전주(7명) 대비 증가

단위(명)

구분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균		캠필로 박터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황색 포도알균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예르시니아 엔테로 콜리티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전국	인천
52주	18	2	1	0	5	0	36	10	33	5	9	0	0	0	0	0	0	0
2019년 1주	14	1	2	0	1	0	22	3	37	3	0	0	0	0	0	0	0	0
2019년 2주	14	2	1	0	0	0	21	6	48	4	2	1	0	0	0	0	0	0
2019년 누적	28	3	3	0	1	0	43	9	85	7	2	1	0	0	0	0	0	0



2015-2019년 세균성 장관감염증 신고현황(전국)

- 2주차(2019.1.6.~2019.1.12.)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2019.1.17.(목)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웹보고 및 2019년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2주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장관감염증 환자 임상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장관감염증 환자* 감시 자료를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2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 2017년 32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 * 인천광역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 9개



국내 감염병 감시정보

- [주간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3호](#) (2019.1.18.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2주차](#) (2019.1.17. 질병관리본부)
- [주간 감염병 최신 정보 4권 2호](#) (2018.1.14. 삼성서울병원 감염병대응센터)

국외 감염병 감시정보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발생소식 인용

- [미국, 미접종 어린이 중심 홍역 유행 발생](#) (2019.1.17.)
 - 2018.1.1.~2019.1.17. Washington주 Clark 카운티에서 어린이 중심 홍역 환자 16명 발생 보고
 - * 최초환자(1.7. 확진, 어린이)는 2018년 12월 중 국외여행력 확인
 - 보건당국은 병원, 학교, 교회, 공항 등 노출가능 장소와 시간대를 홍역역학조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증상발현 시 전화상담 후 병원방문 권고
- [마다가스카르, 자국 내 홍역 유행 지속](#) (2019.1.17.)
 - 2017.10.4.~2019.1.7. 홍역 의심환자 19,539명(확진 375명, 사망 39명) 발생
 - * 이전 보고(1.4.) 이후 의심환자 3,109명(확진 13명) 추가 발생
 - WHO는 전파위험을 국내는 '매우 높음', 지역 및 국제는 '낮음'으로 평가
- [베트남, 남부지역 중심으로 홍역 환자 발생 증가 추세](#) (2019.1.16.)
 - 2019년 첫째 주 호치민시에서 홍역 입원환자 60명 이상 발생
 - * 베트남 홍역 발생현황: 2016년 520명 → 2017년 591명 → 2018년 1,177명(2018.11. 기준)
-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1차 감염 환자 발생](#) (2019.1.19.)
 - 2019.1.19. Riyadh시에서 1차 감염 환자 1명(40세, 남성) 발생
 - * 2019년 총 6명 발생
- [DR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발생 지속](#) (2019.1.17.)
 - 2018.5.11.~2019.1.16. 북동부 North Kivu 주 및 Ituri 주에서 환자 668명(확진 619명, 추정 48명), 사망 410명 발생
 - * 이전 보고(1.10.) 대비 확진 37명, 사망자 25명 증가
 - WHO는 자국 내 인근 주와 인근 국가의 감시 및 대비 강화 권고

홍역 유행

국내 홍역 발생현황

(2019.1.24. 오전 10시 기준)

● 대구·경북 홍역 유행 발생

-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 발생
- 확진자 현황: '18.12.17. 대구시 첫 환자 발생 이후 17명 환자 발생, 17명 모두 퇴원
대구 12명, 경북 경산 2명, 경기 여주* 1명
* 대구지역 의료기관 방문 후 감염되어 대구 사례로 분류(주소지는 여주)

● 경기 홍역 유행 발생

- 경기도 안산시에서 '19.1.18.부터 총 12명의 홍역환자 발생
- 확진자 현황: '19.1.18.부터 총 12명의 홍역환자 발생, 3명 퇴원(시흥 1명, 안산 2명)
안산 11명, 시흥 1명

※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 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대구 B3형, 경기 D8형)

● 국내 개별사례 홍역 유행

- 서울, 전남, 경기, 인천 지역에서 홍역 환자 8명 발생
- 개별사례 발생 8명 중 6명은 각각 베트남(3명), 대만(1명), 태국(1명), 필리핀(1명) 여행 후 홍역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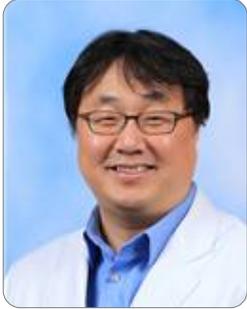
● '18년 12월 이후 홍역 확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주소지	여행력	유전형
집단발생				
대구	17	대구(15), 경북 경산(1) 경기 여주(12)*		B3
경기	12	안산(11) 시흥(1)		D8
개별사례				
서울	3	동대문구	베트남	D8
		동작구	베트남	진행중
		노원구	대만	진행중
전남	1	신안	필리핀	B3
경기	3	안양	태국	D8
		부천	베트남	D8
		김포		진행중
인천	1	부평구		진행중
합계	37			

* 대구지역 의료기관 방문 후 감염되어 대구 사례로 분류(주소지는 여주)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백신



김기환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감염병이란 사람이라는 숙주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병원체가 들어와서 일으키는 병을 말한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과 본의 아니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다른 생명체와 만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 신생아는 출생하는 순간 산모의 산도에서 다른 생명체를 만나는데 감염이 될 수도, 질병을 얻을 수도 또는 집락군으로서 공생관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신생아, 영아, 소아, 청소년, 청년, 장년 등 성장과정에 따라 수많은 생명체를 경험하고 기억한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미생물에 대한 경험은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감염이 되고 면역을 얻는 과정은 사람이 생존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면역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다음의 감염과정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생체기억의 한 종류로 감염 또는 각종 질병에 대처하는 생존수단의 하나이다. 피할 수 없는 감염이라는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인류는 백신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실제 감염이나 감염병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과거의 실제 생활이었다면, 백신을 통해 면역을 얻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다가올 감염성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감염되는 병이거나 사망이나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만한 감염병들을 대상으로 백신이 개발이 되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리면 그 중 분명 꽤 많은 사람들이 중증 질환으로 이환될 수 있다. 또한 치명적인 침습질환을 야기하는 감염병은 치료법이 있다하더라도 쉽게 낫지 못하거나 내성과 같은 병원체의 저항에 따라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현재 개발된 백신들은 그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역사를 뒤돌아보면 백신의 역사와도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백신을 통해 수백만 명의 인류가 살아났다.

최근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백신으로 인해 인류가 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의 감염성 질환의 감소는 백신이 아니라 위생이나 다른 의학의 발달 때문이라고 한다. 1998년 MMR백신과 자폐증이 관련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이젠 잘못된 사실이었다고 밝혀졌고 그 논문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와 비슷한 주장과 잘못된 믿음은 계속되고 있고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행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런 백신반대를 말하는 부모들로 인한 질환의 유행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시키려는 연구나 운동이 생기고 있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전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감염병이 한 개인에게 생기게 되면 나의 친구, 가족 그리고 같은 지역의 사람들도 감염될 위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은 한 개인의 질병에 대한 면역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집단의 면역획득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집단이 한 질병에 대한 면역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가 그 질병이 그 사회에서 유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의 일원들이 백신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을 획득한다면 그 질환의 억제나 퇴치가 가능할 수 있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접종되어야 한다. 접종을 거부하는 행동은 집단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실제 감염의 위험에 처하고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 감염병이 예방되면서 항생제의 사용이 줄어들면 내성세균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내성세균의 감소는 치명적인 감염환자의 발생을 막게 되고 현재 의료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이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잘못된 과학지식과 의학지식으로 시작된 잘못된 믿음은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현명한 부모라면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홍역, 바로 알고 예방하세요!

홍역은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한번 홍역을 앓은 경우나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한 경우에는 면역력이 생겨 질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신 분들을 다음 <MMR 상황별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홍역**

- 홍역: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
- 증상: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남
- 전파경로: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력이 있음)

● **예방법**

- 홍역은 백신(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2회)을 시행
 - 홍역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 홍역 유행 국가: 유럽,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2019년 1월 기준)

<MMR 연령별 예방접종 기준>

연령	접종방법
생후 0~5개월	접종 대상 아님
생후 6~11개월	홍역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해 1회 접종(가속접종*) ※ 홍역 유행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권고하지 않음
생후 12~15개월	1차 접종(적기접종)
생후 13~47개월	홍역 유행 지역 거주자에 한해 1차 접종자는 2차 접종(가속접종*), 1차 미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홍역 유행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권고하지 않음
만 4~6세	1차 접종자는 2차 접종 실시(적기접종), 1차 미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만 7~12세	미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2회 완료자는 필요 없음)
1967년~2005년 이전 출생자	면역의 증거(홍역진단, 항체양성, MMR 2회 접종력)가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적어도 1회) 접종

* 가속접종: 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MMR 상황별 예방접종 기준>

대상	접종방법
임신부, 면역저하자	접종 불가(생백신 접종 금지) *수유부는 접종 가능
가족 중 홍역 환자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접종 가능
홍역 유행 국가 여행 계획자	생후 6~11개월 영아: 가속접종 권고
	만 1세~12세 이하 어린이: 2회 접종 권고
	성인: 면역의 증거(홍역진단, 항체양성, MMR 2회 접종력)가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적어도 1회) 접종 권고

● **홍역 유행 국가 여행 시 예방수칙**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여부 확인
	-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
여행 중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

● **홍역 의심 증상 발현 시 행동수칙**

1.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
2.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대중교통 이용 자제)
3.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 방문

※ 인천광역시 홍역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9개): 인천기독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백병원, 인천적십자병원(응급실 미운영/주간만 운영), 가천대길병원, 나은병원, 검단탑병원, 강화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